

C-5 Phenytoin-induced gingival hyperplasia 치료에 관한 증례 보고

염혜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1939년 Phenytoin이 치은조직에 미치는 부작용이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Phenytoin-induced gingival hyperplasia에 관해 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도 그 작용기전은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으며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Phenyto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약 절반 가량에서 치은 증식증이 나타난다고 한다.

본 Case report에서는 Phenytoin 복용 후 치은 증식증이 생긴 환자를 #13-#23 부위의 협측과 구개측, 그리고 #43-#33 부위의 협측은 external gingivectomy로 치료하였고, 그 외 다른 모든 부위는 modified flap curettage로 치은 증식증을 치료하였다.

전치부는, 접근은 쉽지만 치은의 외형이 너무 불규칙해서 modified flap curettage로 치료하기가 어려워, 통상의 external gingivectomy로 치료하는 것이 유리했으며, 구치부는 external gingivectomy로 치료할 경우엔 접근이 힘들며, 또, gingival hyperplasia의 양도 많지 않아서 치은의 외형이 다소 일정하다는 점때문에 modified flap curettage로 치료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치은 증식증을 modified flap curettage로 치료할 때의 장점은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과 Denudation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수술후에 환자의 통증과 불편감이 적다는 점이다.